

금호고가 준비하는 광주축구의 '봄'

정중훈, 포르투갈 U-17 국제축구대회 대표 발탁 첫 태극마크
지난해 대회 엄지성·신승훈 맹활약... 허율, 광주 FC 입단
기술력·팀워크 탄탄한 고교 강호... 올 성적·유망주 탄생 관심

'광주축구의 미래' 금호고의 활약은 2020시즌에도 계속된다.
광주FC U-18인 금호고의 정중훈(FW·2년)이 첫 태극마크를 달고 5일 포르투갈로 출국했다.
대표팀에 소집된 정중훈은 6일부터 13일까지 포르투갈 알가르베에서 열리는 2020 알가르베 U-17 국제축구대회에 참가한다.
U-17대표팀은 8일 개최국인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10일 스페인, 12일 독일과 폴리로 대결을 벌이게 된다.
정중훈의 대표팀 승선과 함께 금호고의 2020시즌 질주에도 눈길이 쏠린다.

최수용 감독이 이끄는 금호고는 강도 높은 체력 훈련과 기본기를 바탕으로 고등리그 강호로 꼽히고 있고, 꾸준히 성인 대표팀과 연령별 대표 선수를 배출하고 있다.
지난해 U-17 대표팀에는 엄지성(MF)과 신승훈(GK)이 있었다.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에 출전한 두 사람은 아쉽게 8강에서 도전을 멈춰야 했지만, 각각 대표팀의 첫 골 주인공과 득점한 수문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3학년이었던 허율도 2019 판다컵과 GSB 방콕컵, 2020 AFC U-19 챔피언십 조별예선 등에서

5경기 3득점을 기록하는 등 금호고의 에이스는 물론 대표팀의 주축 선수로도 맹활약했다.
금호고는 탄탄한 팀워크로 지난해 K리그 U-18 챔피언십에 이어 전국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 겸 제74회 전국고교축구선수권대회 제패하며 '형남' 광주FC와 우승 질주를 펼쳤다.
새로운 2020시즌의 스타트는 정중훈이 끊었다. 정중훈은 170cm·62kg로 체격은 작지만 적극적인 공간침투와 마무리 능력이 뛰어난 공격수다. 빠른 스피드와 뛰어난 발기술로 측면까지 소화하는 정중훈은 저돌적인 플레이로 금호고 선배인 나상호를 연상시킨다.
정중훈은 "생애 첫 태극마크에 열렬했고 긴장도 있지만 그만큼 자신도 있다. 팀 전술에 맞춰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중훈을 이끌고 포르투갈로 향한 U-17 대표팀 김정수 감독도 기영욱 전 광주FC 단장이 키워낸 금호고의 대표적인 선수 중 한 명이기도 하다.

프로에서도 금호고 계보를 잇기 위한 도전이 준비되고 있다.
금호고를 졸업하고 바로 프로에 뛰어든 허율은 광주FC가 기대하는 특급 유망주다.
193cm의 장신인 허율은 큰 키를 활용한 헤더와 집착한 슈팅이 돋보이는 타깃형 스트라이커다.
장신이지만 100m를 12초 초반에 끊는 스피드와 뛰어난 발기술까지 갖추면서 선배들은 '제2의 펠리페 라 부르며 허율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허율은 2018시즌 'K리그2 MVP'에 빛나는 나상호와 지난 시즌 '엄살라'로 눈길을 끈 엄원상의 뒤를 이어 올 시즌 광주 그라운드에서 새로운 돌풍을 불게 하겠다는 각오다.
허율은 "상호형, 원상형의 계보를 이어 좋은 선수되려고 기대해주시는 것 같다. 잘 적응해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2020시즌을 준비하는 포부를 밝혔다.



U-17 국제축구대회 대표 발탁 2학년 정중훈.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골 세리머니가 과했나? 지난 4일 세인트루이스 엔터프라이즈 센터에서 열린 북미하키리그(NHL) 경기에서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즈의 브록 맥킨(왼쪽)이 세인트루이스 블루즈의 골텐더 조던 비닝턴을 뚫고 골을 넣은 뒤 넘어지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블루즈가 6-3으로 이겼다. /연합뉴스

고진영·박성현·김세영 LPGA 亞 스윙대회 불참

한국 여자 골프 선수 세계랭킹 '빅3' 고진영(25)과 박성현(27) 김세영(27)이 이달 태국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아시아 스윙 대회에 불참한다.
세계랭킹 1위 고진영과 세계랭킹 6위 김세영은 오는 20일부터 나흘 동안 태국 파타야에서 열리는 혼다 LPGA 타이랜드와 27일부터 나흘 동안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에 출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고진영은 올해 들어 아직 LPGA투어 대회에 출전한 적이 없다.
고진영 측은 "겨울 훈련 진도가 기대보다 늦어져 최상의 컨디션을 갖추고 대회에 나서려고 대회 출전을 3월로 미뤘다"고 말했다.
고진영은 3월 20일부터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리는 파운더스컵부터 시즌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세영 측은 "2월에는 미진한 겨울 훈련을 완성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세영 역시 3월 파운더스컵에서 투어에 복귀한다.
세계랭킹 2위 박성현도 대회 출전 일정을 다시 조정하면서 애초 출전하려던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을 건너뛰기로 결정했다.
박성현 측은 "어깨 부상은 다 나왔지만 아무래도 훈련에 약간 차질이 생겼다. 최상의 경기력을 갖추고 경기에 나서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 따라 3월 파운더스컵부터 시즌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박성현은 이 대회에서 지난해 우승해 이번이 타이틀 방어전이다.
다들 훈련이 미흡하다는 설명이지만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의 동남아시아 지역 확산도 불참 배경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필라델피아, 34번 영구 결번 비행기 사고사 할러데이 추모

미국프로야구(MLB)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명예의 전당 투수 로이 할러데이의 등 번호를 영구 결번으로 지정한다.
USA투데이는 5일 필라델피아 구단이 할러데이의 등 번호 '34번'에 대한 영구 결번식을 오는 5월 30일 갖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5월 30일은 할러데이가 플로리다 말린스를 상대로 퍼펙트게임을 달성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메이저리그에서 두 차례나 사이영상을 받은 할러데이는 2017년 11월 비행기 사고로 인해 마흔 살의 나이에 생을 마쳤다.
1998년 빅리그에 데뷔한 할러데이는 2010년까지 16시즌 동안 개인 통산 203승 105패 평균자책점 3.38을 기록했다.
2003년 토론토 블루제이스 소속으로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을 받은 할러데이는 2010년에는 필라델피아 필리스 유니폼을 입고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을 받았다.
또 필라델피아 소속이던 2010년 5월 30일에는 플로리다 말린스를 상대로 한 명도 출루를 허용하지 않아 메이저리그 역대 20번째 퍼펙트게임의 위업을 달성했다. 그해 10월 6일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에서는 신시내티 레즈를 만나 노히트 노런을 기록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태극전사들 새 백호 품고 뚝다

대한축구협회, 새 엠블럼 발표
'태극전사'들이 달았던 '백호'를 가슴에 달고 그라운드에 오른다.
대한축구협회(KFA)가 5일 KT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엠블럼을 포함한 신규 브랜드 아이덴티티(이하 BI)를 발표했다.
19년 만에 한국 축구를 상징했던 '백호'의 얼굴이 달라졌다.
호랑이 전신을 표출했던 기존 엠블럼과 달리 새 엠블럼은 웅맹한 디자인을 단순화하고 백호의 날카로운 눈매와 무늬를 강조, 카리스마와 진취성을 드러냈다.
협회와 대표팀이 추구하는 '두려움 없는 전진'이라는 핵심가치를 구현한 새 엠블럼의 사각 프레임

은 그라운드를 의미하고, 백호 얼굴은 축구 주요 포메이션을 형상화했다.
기존 엠블럼의 복잡한 무늬와 글자도 배제하고 현대 트렌드에 맞는 간결함을 살렸다.
메인 엠블럼에는 대한민국의 상징색인 빨강, 파랑, 검정, 흰색이 사용됐다. 각각의 색은 역동성, 웅맹함, 도전정신 그리고 신뢰감과 페어플레이를 상징한다. 현대미를 가미하기 위해 빨강과 파랑은 채도를 조절했다.
새 BI에 걸맞은 'KFA고딕'이라는 전용서체도 공개됐다.
'KFA고딕'은 신규 엠블럼의 조영적 특징을 고려, 현대미와 힘이 느껴지도록 글자 너비를 좁게 했다. 가로와 세로획 사이의 비율 대비를 높여 날카로운 음과 속도감을 더했고, 글자 오른쪽 맺음 부분은 사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선으로 처리했다.
협회는 방송 제작 그래픽, 각종 제작물 및 상품화를 위한 브랜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통일된 BI 구축과 브랜드 가치 구축에 노력할 계획이다.
KFA 정몽규 회장은 "새롭게 발표된 엠블럼을 포함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기존의 모습에서 탈피해, 꾸준한 도전과 변화를 갈망하는 협회의 의지를 반영했다"며 "새 얼굴을 통해서 '두려움 없는 전진'이라는 우리 협회 전 임직원의 각오가 축구팬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비거리 증가시키는 장비 규제
美 골프협회 보고서 발표
전 세계 골프 경기의 규칙을 관장하는 미국골프협회(USGA)와영국의R&A가기술의힘만으로비거리를증가시키는장비를규제하겠다는의지를보냈다.
5일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USGA와 R&A는 비거리에 관한 보고서 '디스턴스 인사이트 프로젝트'(Distance Insights Project)를 내고 장비 문제에 고삐를 죄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USGA와 R&A 두 골프 단체는 비거리 증대를 억제하기 위해 장비 테스트 기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골프용품 제조 업체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언제 새로운 장비 기준이 도입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연합뉴스